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September 2025 Issue | Vol. 66

SPECIAL POINTS OF INTEREST

- **BSP: 경제전문가들, 올해 인플레이션 1.7% 전망** — page 1-2
- **SEC, 선반등록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 page 2
- **BSP, 현금 인출 한도 50만 페소로 제한** — page 2-3
- **에너지부, 100MW 규모 신규 재생에너지 계약 입찰 추진** — page 3-4
- **3분기 우기와 홍수로 건설 부진 장기화 전망** — page 4-5
- **재계, 마르코스 대통령에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요구** — page 5-7

UPCOMING EVENT

- **[Sept 25– Sept 26]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2025** — page 8

BSP: 경제전문가들, 올해 인플레이션 1.7% 전망

September 22, 2025 | By Malaya Business News Team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제전문가들은 쌀 가격 하락을 이유로 2025년 평균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7%로 낮췄다.

또한 2026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기존 2025년 7월 조사에서의 3%에서 2025년 8월 BSP 외부전문가 설문조사(BSEF) 기준 평균 2.8%로 하향 조정했다.

2027년의 경우 인플레이션 전망은 평균 3%로 유지되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모두 BSP의 2~4% 목표 범위 안에 있었으며, 물가 압력이 완화된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주말에 BSP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 요인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유가 상승 가능성과 쌀 수입 중단과 같은 쌀 시장 정책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역시 CPI의 상방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쌀 가격 하락은 인플레이션 전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사에서는 밝혔다.

BSP는 “이러한 전개 속에서 목표 범위 내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며, 단기적으로 목표 범위 하단을 밑돌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CPI가 정부 목표 범위 내에 머물 확률을 29.8%로 예상했는데, 이는 7월에 기록된 43.4%보다 낮은 수치다.

최신 BSP 조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2~4% 목표 범위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은 69.2%로, 이전 조사(56.6%)보다 더 높아졌다.



BSP는 2026년 인플레이션이 목표 범위 내에 머물 확률은 이전 90.7%에서 80.8%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BSEF는 23명의 분석가들의 전망을 토대로 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2025년 8월 22일 기준이다.

인플레이션, 점진적으로 4% 근접 전망

최신 BSP 통화정책보고서(MPR)는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여전히 완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BSP는 “인플레이션은 2025년 4분기까지 목표 범위 아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2025년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다소 높아졌는데, 이는 7월 태풍의 파급효과와 승인된 쌀 수입 금지 조치의 잠재적 부정적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말에 발표된 보고서는 전기요금 상승과 식품 가격 상승에 따른 지체효과가 내년 물가 압력을 높일 것이며, 이에 따라 CPI는 2026년 4분기에는 목표 범위 상단에 근접한 뒤 2027년에는 다시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유가 하락은 2026년 인플레이션을 예상보다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BSP는 “이는 2025년 6월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의 시차 효과와 높은 최저임금 가정에 의해 일부 상쇄된다. 2027년에도 높은 최저임금과 기준금리 인하의 지연 효과가 인플레이션 전망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Cont. page 2]

BSP: 경제전문가들, 올해 인플레이션 1.7% 전망

[Cont. from page 1]

BSP 기준금리 인하

BSP는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2025년 중 남은 기간 동안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금리를 25bp에서 50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추가로 25~50bp 인하가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하지만, 대부분은 BSP가 2027년에는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관련 기사: 같은 지면에 실린 BSP 기준금리 인하 기사 참조)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sp-economists-forecast-1-7-inflation-this-year/>

SEC, 선반등록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September 22, 2025 | Alexandria Grace C. Magno | BusinessWorld



SEC.GOV.PH

이제 기업들은 선반등록(shelf registration)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후속 발행 절차 요건을 간소화하는 규정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SEC는 2025년 제12호 양해각서(MC No. 12)에서, 개정된 선반등록 제도가 등록신고서 효력 발생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행사는 증권을 여러 차례(tranche)에 걸쳐 더 오랜 기간 동안 발행·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증권규제법(Securities Regulation Code) 제8.1.2조의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후속 발행 시 판매허가서(PTS)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지침도 도입했다.

발행사는 부속 서류가 첨부된 서명·공증된 SEC 양식 12-1-SR, 갱신된 발행 보충자료 또는 투자설명서(prospectus), 그리고 필요 시 중대한 변경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는 또한 신청서 제출 기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1년 이내의 발행으로 별도의 갱신된 재무제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는 발행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갱신된 재무제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 30일 전에 제출해야 하며, 1년이 지난 이후의 후속 발행분도 마찬가지로 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등록 수수료는 각 발행분(tranche)에 비례하여 납부하며, 증권 발행 또는 판매 최소 7영업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한 발행사는 선반등록 만료 최소 30영업일 전까지 잔여 등록 수수료를 모두 납부할 것을 약정해야 한다.

SEC는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유효기간이 개정 시행 시 이미 승인되어 유효 중인 모든 선반등록 신청서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등록의 잔여 유효기간은 기존 등록의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corporate/2025/09/22/699792/sec-extends-shelf-registration-validity-to-five-years/>

BSP, 현금 인출 한도 50만 페소로 제한

September 18, 2025 | By Manila Bulletin Newsroom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고객 현금 거래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도입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이 현금 인출 및 기타 지급액을 최대 50만 페소(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로 제한하도록 의무화했다.

[Cont. page 3]

BSP, 현금 인출 한도 50만 페소로 제한

[Cont. from page 2]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이번 조치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필리핀 금융시스템을 한층 더 디지털 중심 환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2025년 9월 18일 금융위원회(Monetary Board)의 승인을 받은 BSP 서클러 제1218호에 명시되어 있으며, BSP 감독 금융기관(BSFI)들이 50만 페소를 초과하는 거래를 비현금 수단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BSP는 이에 해당하는 비현금 수단으로 수표 지급, 계좌이체, 예금계좌 직접 입금 등을 예시했다. 이번 한도는 단일 거래뿐만 아니라 동일한 은행 영업일 내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거래에도 적용되어, 규정을 회피하려는 잠재적 허점을 차단한다.

다만 이번 서클러는 일정 조건 하에서 한도 이상의 현금 지급을 허용하는 길도 열어두었다.

중앙은행은 BSFI가 한도 초과 현금 지급을 승인할 수 있지만, 그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절차(EDD, Enhanced Due Diligence)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객은 추가적인 신원 확인 자료와 거래 목적이 합법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업 활동임을 증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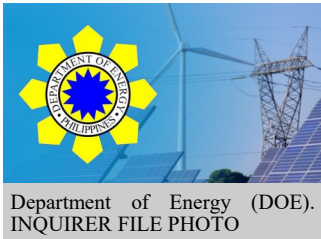
만약 BSFI가 EDD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해당 절차가 불법 활동에 연루된 고객에게 ‘경고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의심될 경우, 즉시 자금세탁방지위원회(AMLC)에 의심거래보고서(STR)를 제출해야 한다.

BSP는 이번 규정이 중앙은행의 현금 거래에 대한 집중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리스크 평가에서 현금 거래가 불법 자금의 유입·유출에 있어 주요 취약점으로 확인되었음을 강조했다.

Source: <https://mb.com.ph/2025/09/22/global-banks-flag-political-fiscal-risks-to-philippine-peso-economy>

에너지부, 100MW 규모 신규 재생에너지 계약 입찰 추진

September 20, 2025 | Lisbet K. Esmael | Philippine Daily Inquirer



마닐라, 필리핀 — 에너지부(DOE)는 최소 100메가와트(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서비스 계약 입찰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DOE의 계약조건 초안에 따르면, 수력, 지열, 풍력 자원 가운데 “홍보와 추가 개발을 위한 충분한 기술 자료가 확보된” 자원들이 선정되었다.

다섯 번째 공개 경쟁선정절차(OCSP)에서는 총 37.4MW의 잠재용량을 가진 7개의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목록에 올랐다.

이번 입찰에는 68MW 규모를 예상하는 두 개의 지열발전 개발 계획도 포함되었다.

추가로 두 개의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준비 중이지만, 이들의 잠재 발전용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DOE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들은 재생에너지 계약의 직접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더 많은 투자 유치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더 많은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OCSP로, 자격을 갖춘 생산자가 지정된 재생에너지 부지를 개발할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이니셔티브는 녹색에너지입찰(GEA) 프로그램으로, 낙찰된 업체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된 고정 전력요금이 적용된다.

DOE는 최근 네 번째 GEA 라운드를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9,423.622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끌어모았다.

[Cont. page 4]

에너지부, 100MW 규모 신규 재생에너지 계약 입찰 추진

[Cont. from page 3]

현지 재생에너지 부문을 위한 자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성장 중인 탄소배출권 시장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국가나 기관의 배출량을 상쇄하는 데 활용되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자금은 기후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샤론 가린 에너지부 장관에 따르면, 에너지 산업을 위한 탄소배출권 제도(framework)를 현재 마무리 단계에 두고 있다.

가린 장관은 DOE의 탄소배출권 정책이 “올해 안에”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에너지 부문은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한 탄소배출권 정책을 바탕으로 싱가포르와 일본과 이미 협력할 수 있도록 서둘러 추진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rwd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48031/doe-to-auction-new-renewable-energy-contracts>

3분기 우기와 홍수로 건설 부진 장기화 전망

September 22, 2025 | By Manila Bulletin Newsroom

우기와 홍수 속에서 민간 건설 프로젝트가 7월에 감소했으며, 전체 프로젝트 수, 연면적, 그리고 가치 모두 전달 및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고 필리핀통계청(PSA)의 최근 잠정 자료가 밝혔다.

민간 부문 경제전문가들은 이러한 둔화세가 3분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체 경제성장에는 비교적 작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PSA는 지난 9월 19일(금) 7월 건축허가 건수가 전년 대비 8.5% 감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민간 건설 활동을 가늠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7월 총 프로젝트 수는 15,395건으로, 2024년 7월의 16,821건에서 줄어든 수치다.

이는 6월 16,394건으로 14.9%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한 뒤에 나타난 감소세다.

필리핀통계청(PSA) 자료에 따르면, 7월 민간 건설 프로젝트 가치는 445억4천만 페소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481억6천만 페소)보다 7.5% 감소했다. 이에 앞서 6월에는 588억9천만 페소 규모의 건축 허가가 승인됐다.

연면적 기준으로는, 7월에 승인된 건축 허가 면적이 347만㎡로, 6월의 459만㎡와 지난해 7월의 354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건축물이 1만157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의 약 3분의 2를 차지했지만, 이는 지난해 같은 달 기록된 1만1,096건보다 8.5% 줄어든 수치다. 6월에는 1만1,201건으로 더 많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 중 단독주택이 8,0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3,205건으로 전체의 약 5분의 1을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이 가운데 상업용 건축물이 2,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프로젝트 수가 주거용보다 적었지만, 건축 가치에서는 198억4천만 페소(전체의 44.6%)로 주거용(197억7천만 페소, 44.4%)을 약간 웃돌았다. 연면적도 비주거용은 178만㎡(51.2%)로 주거용의 163만㎡(47%)보다 더 컸다.

이 밖에도 7월에는 중축(5억7,798만 페소), 개조 및 수리(32억6천만 페소), 기타 유형의 건축(10억9천만 페소) 등이 포함됐다.

리잘상업은행(RCBC)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리카포트(Michael Ricafort)는 9월 20일(토) *마닐라 불렛틴*과의 인터뷰에서, 7월 건설 활동 감소는 주로 날씨와 관련된 차질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카포트는 잇따른 태풍과 홍수가 건설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약세가 향후 수개월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동차 판매 둔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과 유사하다” 고 덧붙였다.

[Cont. page 5]



3분기 우기와 홍수로 건설 부진 장기화 전망

[Cont. from page 4]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필리핀개발연구원(PIDS)의 선임연구원 존 파올로 리베라(John Paolo Rivera)는 이번 수치가 민간 건설, 특히 주거용 프로젝트의 뚜렷한 둔화를 보여준다고 *마닐라 불렛틴*에 밝혔다.

리베라는 이번 둔화의 일부 원인을 최근의 악천후—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계절성 몬순 폭우와 홍수—에서 찾으며, 이로 인해 공사 현장 접근이 방해받고, 지방정부 인허가가 지연되며, 기반시설이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날씨 위험이 계속되고 일부 개발업자들이 프로젝트를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나머지 기간 동안 건설 활동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리베라는 허가 건수의 감소가 건축 자재, 부동산, 지역 고용 등 건설 관련 부문에서 3분기 성장세를 일부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외부 충격이나 신용 조건의 긴축이 겹치지 않는 한, 이번 둔화가 국내총생산(GDP) 전체 성장세를 크게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icardo M. Austria)

Source: <https://mb.com.ph/2025/09/22/construction-slump-seen-lingering-amid-rainy-weather-floods-in-q3>

재계, 마르코스 대통령에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요구

September 23, 2025 | Justine Irish D. Tabile and Chloe Mari A. Hufana | BusinessWorld



Thousands of participants walk along the northbound lane of EDSA towards the People Power Monument in Quezon City while shouting and holding various placards condemning the corruption in the government during the Trillion Peso March, Sept. 21. — PHILIPPINE STAR/ MIGUEL DE GUZMAN

기업 단체들은 월요일 마르코스 행정부에 대해 국민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수천 명의 필리핀 국민들이 홍수 방지 사업에서 수십억 페소가 부패로 사라진 것에 분노를 표하며 전국적인 집회에 참여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번 시위는 국민들이 더 강력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기업 및 투자 환경을 강화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라고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 엔루니나 V. 만지오 회장은 바이버 메시지를 통해 말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건설적인 개혁과 일관된 정책 방향으로 이어진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러나 만지오 회장은 기업계가 이번 시위가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시하고 대응하려는 부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당분간 관망하는 태도를 취할까 우려됩니다.” 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만지오 회장은 필리핀이 장기적인 투자자 신뢰와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굳건한 거버넌스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산업연맹(FPI)은 반(反)부패 시위가 “공공 자금 관리에서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건전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는 국민의 깊은 수요를 반영하며, 이는 기업 및 투자 커뮤니티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최근의 정치적 상황이 일부 투자자들로 하여금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필리핀이 투명성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기회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투자자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FPI는 바이버 메시지에서 밝혔다.

[Cont. page 6]

재계, 마르코스 대통령에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요구

[Cont. from page 5]

그러나 FPI의 엘리자베스 H. 리 회장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급하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녀는 부패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조사가 추진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조달, 감사, 감독 메커니즘을 강화하여 ‘유령 프로젝트’와 공공 자금의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 회장은 “필리핀이 이러한 도전에 투명성과 결단력으로 맞선다면 더 강하고, 더 경쟁력 있으며, 장기 투자에 더욱 매력적인 나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지역 기업, 제조업체, 생산자들이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의존하는 안정성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카티 비즈니스 클럽(Makati Business Club)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 전복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월요일 성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적인 사회적·제도적 개혁이며, 변화는 우리 각자에게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선출된 지도자들과 임명된 관료들로부터 더 나은 거버넌스를 요구함으로써 부패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말라카냥은 월요일 기업계에 정부가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말라카냥 대변인 클라리사 A. 카스트로는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단순히 홍수 통제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프라 프로젝트의 불규칙성을 조사하기 위해 반부패 기구를 설립한 것은 부패 근절에 대한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부패와 싸우는 지도자, 부패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려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있는 나라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라고 그녀는 궁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말했다.

그녀는 이어 “대통령이 부패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대통령을 존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영어와 필리핀어를 섞어 말했다.

카스트로 대변인은 새로 설립된 독립 인프라 위원회(ICI)가 이미 한 걸음 나아간 조치라며, 대규모 비리를 조사할 의지가 있는 유일한 국가수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카스트로 대변인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필리핀 탐사저널리즘센터(PCIJ)가 2022년 대선 당시 공공사업고속도로부(DPWH) 계약업체 두 곳으로부터 총 2,100만 페소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보도한 이후, ICI의 모든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PCIJ는 해당 업체가 이후 3년 동안 공공사업 계약이 크게 증가했으며, 선거법(Omnibus Election Code)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카스트로 대변인은 행정부가 이번 조사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 일을 하게 두십시오. 조사할 것입니다.”라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어떤 정부 기관도 누구든 책임에서 보호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의 정치학자 아르만 P. 아그레는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필리핀의 깊이 뿌리내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ICI의 설립은 오히려 자기 모순적이며 남용과 오용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대부분의 구상은 제도적 역량과 정치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라고 말했다.

아그레 교수는 정부의 대응 대부분이 임시방편적 조치(band-aid solutions)에 불과하며, 제도 개혁을 내재화하는 방식으로 부패 척결을 시작했더라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카티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에더슨 DT. 타피아는 반부패 노력이 대중의 신뢰 회복과 초기 투자자 관심 유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투자는 사법부, 관료제, 규제기관의 광범위한 개혁을 통해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Cont. page 7]

재계, 마르코스 대통령에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요구*[Cont. from page 6]*

그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좋은 거버넌스는 첫 번째 투자 관심을 끌어들이지만, 지속적인 투자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정치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제도를 필요로 한다.”라고 밝혔다.

타피아 교수는 또한, 부패 조사가 책임 추궁과 개혁으로 이어질 경우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 체계적 결함만 드러내고 실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록 파기 논란?

관련 소식으로, ICI(독립 인프라 위원회)는 월요일 홍수 통제 사업 비리에 연루된 공공사업부(DPWH) 직원들이 대규모로 공식 문서를 파기하거나 조작했다는 보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안드레스 B. 레예스 주니어 ICI 위원장이 서명한 성명서는 이러한 행위를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명백히 방해하고, 국민의 투명성과 책임에 대한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또한 “기록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공공 자원을 보호할 책임을 맡은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하며, 모든 공공사업 관련 기록은 국민의 자산임을 강조했다.

ICI는 공식 문서를 파기·위조·은폐하려는 자는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모두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CI는 또한 공공사업·고속도로부(DPWH)의 간부 및 직원들에게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고 모든 문서의 보존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9/23/700081/business-groups-urge-marcos-to-heed-publics-call-for-transparency-accountability/>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ARANGKADA PHILIPPINES INVESTMENT FORUM 2025

MARRIOTT GRAND BALLROOM
SEPTEMBER 25-26, 2025

DAY 1 - SEPTEMBER 25

KEYNOTE SPEAKERS



HON. FREDERICK GO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INVESTMENT AND
ECONOMIC AFFAIRS
OFFICE OF THE PRESIDENT

PANELISTS, PRESENTERS, AND MODERATORS



HON. ERNESTO PEREZ
SECRETARY
ANTI-RED TAPE
AUTHORITY



USEC. DOMINI VELASQUEZ
UNDERSECRETARY
DEPARTMENT OF FINANCE



RICKY CARANDANG
HEAD OF EXTERNAL
AFFAIRS
FIRST PHILIPPINE
INDUSTRIAL PARK



ANDREW JEFFRIES
COUNTRY DIRECTOR FOR
THE PHILIPPINES
ASIAN DEVELOPMENT
BANK



GONZALO VARELA
LEAD ECONOMIST AND
PROGRAM LEADER
WORLD BANK



ATTY. ELAINE COLLADO
COUNTRY DIRECTOR
PHILIPPINES
VRIENS & PARTNERS



DR. ENRICO PARANGIT
EXECUTIVE DIRECTOR
OF PHILIPPINE COUNCIL FOR
INDUSTRY, ENERGY AND
EMERGING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USEC. ASIS PEREZ
DEPARTMENT OF
AGRICULTURE



USEC. CARLOS PRIMO DAVID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DR. ROEHLANO BRIONES
SENIOR RESEARCH
FELLOW
PHILIPPINE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ATTY. MIKE TOLEDO
CHAIRMAN & PRESIDENT
CHAMBER OF MINES OF THE
PHILIPPINES



MARICAR BAUTISTA
SPOKESPERSON FOR
BUSINESS
INFRASTRUCTUR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ICHAEL ARCATOMY GUARIN
CO-HEAD OF ADVISORY
R.G. MANABAT & CO.



DR. DANILLO LACHICA
PRESIDENT
SEMICONDUCTOR &
ELECTRONICS INDUSTRIES IN
THE PHILIPPINES
FOUNDATION, INC.



MARIZ REGIS
PRESIDENT AND CEO,
AIRSPEED
INTERNATIONAL CORP.
AIRSPEED GROUP OF
COMPANIES



SATYA RAMAMURTHY
CHIEF PUBLIC SECTOR
STRUCTURED FINANCE
DEPARTMENT ASIA
PACIFIC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DR. ENRICO BASILIO
PROFESSOR AND DIRECTOR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CENTER FOR
POLICY AND EXECUTIVE
DEVELOPMENT



HON. HENRY RHOEL AGUDA
SECRETARY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PAOLO MERCADO
PRESIDENT
CREATIVE ECONOMY
COUNCIL OF THE
PHILIPPINES



LOTUS POSTRADO
COUNTRY DIRECTOR
BRITISH COUNCIL



DIR. LILIAN SALONGA
OFFICER-IN-CHARGE
DTI-CREATIVE INDUSTRIES
DEVELOPMENT OFFICE



LIM WEI SIONG
VICE PRESIDENT
GOVERNMENT AFFAIRS
ASIA PACIFIC
MASTERCARD



GRACE MIRANDILLA-SANTOS
INDEPENDENT ICT POLICY
RESEARCHER AND
AUTHOR OF THE
ARANGKADA BROADBAND
POLICY BRIEF

DAY 2 - SEPTEMBER 26

KEYNOTE SPEAKERS



ROBERT EWING
DEPUTY CHIEF OF MISSION
U.S. EMBASSY MANILA



RAFAEL ONGPIN
EXECUTIVE DIRECTOR
MAKATI BUSINESS CLUB

GOVERNMENT AND INDUSTRY TALKS



ERIES CAGATAN
EXECUTIVE DIRECTOR
BOARD OF INVESTMENTS



MOHAMMED HUSSEIN PANGANDAMAN
PRESIDENT AND CEO
AUSTRALIAN PACIFIC
ECONOMIC ZONE
DEPUTY ADMINISTRATOR FOR
SUPPORT SERVICES
AUTHORITY OF THE FREEPORT
AREA OF BRITAIN



ATTY. GIL G. TAWAY IV
PRESIDENT AND CEO
AUSTRALIAN PACIFIC
ECONOMIC ZONE



ENGR. RANDY VIACRUSIS
VICE PRESIDENT STRATEGIC PROJECTS
MANAGEMENT DEPARTMENT
MASEL CONVERSION AND
DEVELOPMENT AUTHORITY



ROEL PEREZ
ASSISTANT VICE PRESIDENT FOR
BUSINESS ENHANCEMENT DEPARTMENT
CLARK DEVELOPMENT CORPORATION



SEC. KATRINA PONCE ENRILE
ADMINISTRATOR AND CEO
CAGANAN DE ORO
ECONOMIC ZONE
AUTHORITY



MARIA VERONICA MAGNO
DEPUTY DIRECTOR GENERAL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PHILIPPINE ECONOMIC ZONE AUTHORITY



KAREN MAGNO
DEPARTMENT HEAD 9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MARK LAPID
CHIEF OPERATING OFFICER
TOURISM INFRASTRUCTURE
AND ENTERPRISE ZONE
AUTHORITY



ATTY. KAREN MAE G. SARINAS-BAYDO
ASSISTANT CHIEF OPERATING
OFFICER
TOURISM INFRASTRUCTURE AND
ENTERPRISE ZONE AUTHORITY



CELESTE ILAGAN
CHIEF OPERATING OFFICER
IT AND BUSINESS PROCES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RONALD ACIO
SENIOR DIRECTOR OF
BUSINESS DEVELOPMENT
GHD



MON ABREA
FOUNDER AND CEO
ASIAN CONSULTING
GROUP



MONICA LORENZANA TRAJANO
VICE PRESIDENT FOR
COMMERCIAL STRATEGY
SOUTHEAST ASIA
ACCIONA



FRANCISCO MORENO
HEAD OF BUSINESS
DEVELOPMENT
SOUTHEAST ASIA
ACCIONA



ENGR. EMMANUEL CAGUNIL
FOUNDER AND CEO
XPERTO

SPONSORED BY:

PLATINUM



GOLD



SILVER



BRONZE



SECTORAL



EVENT PARTNERS

MEDIA PARTNERS



CO-PRESENTED BY:



www.arangkadaphilippines.com



/Arangkada Philippines



/arangkadaphilippines



/ArangkadaPH



/Arangkada Philippine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SGV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SGV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 2024 SGV Corp. All Rights Reserved.

How will business move faster to slow climate change?

It will take business and government working together to reverse climate change.

Find out how SGV can help you reframe the future to create a better, more sustainable working world.

■ ■ ■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In everything we do, we nurture leaders and enable businesses for a better Philippines.
#SGVforABetterPhilippines
www.sgv.ph



Scan to access
SGV's Sustainability Report, Doing Business and other publications